

전북연구개발특구, 가장 빠른 성장

이달에 5개사 설립 30호 연구소기업 달성 예정... 타 특구 평균 5년차 20호 비해 탁월

전북연구개발특구가 타 지역 대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에 따르면 21일 (주)네프와 (주)가온우드 등 전북 특구 23~27호 연구소기업을 설립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3건을 포함하면, 이달 말까지 전북연구개발특구에 30호 이상의 연구소기업이 설립될 예정이다.

타 특구가 평균 5년차에 20호 연구소기업을 달성하는 것에 비해 2년차인 전북특구는 올 3월에만 5개의 연구소기업을 추가해 총 27호 연구소기업을 달성하는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북특구 연구소기업은 양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수하는데, 전북특구 연구소 기업의 평균 자본금은 27개사 평균 6억 이상으로 타 특구 대비 가장 높으며, 분야별로는 농생명 융합 분야 15건(55.6%), 융복합 소재, 부품 11건(40.7%), 기타 1건(3.7%)이다.

이처럼 빠른 설립이 가능했던 것은 전북특구본부가 출자 후보기술 찾기와 사업화할 수요기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했고, 입주 공간 정보제공 및 기술금융 지원 등 토털 솔루션을 제공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요인으로 외부에서 전북특구로 유입된 기업이 많은데 전북특구 내로

유입된 기업은 18개로 전체의 66.7%를 차지한다.

농생명분야 기업은 농업분야 4개 국립연구기관 및 생명(연), 방사선(연), 안전성(연) 등 농생명분야 협업 가능한 연구 인프라의 장점을 내세워 유치를 추진했으며, 융복합 소재, 부품분야는 탄소배출 저감 등 국가 탄소 융복합, 소재 집적특구로서의 장점을 홍보, 유치에 성공했다.

한편, 기존 연구소기업들의 경우 투자 유치 및 매출 등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주)키비아이오테(150호, 전북 1호)은 KB우수기술기업투자펀드에서 3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연구소기업 (주)

금강이엔지는 2016년 약 110억원의 매출달성 및 (주)아류스캔은 관세청에 조달사업 관련 200억 규모의 계약에 참여 하는 등의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올해 전북특구본부는 기업가정신 교육, 기업역량 진단 및 단기 시장진출을 위한 연구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연구소기업의 성장지원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술사업화 펀드(501억원)' 조성 추진 중으로, 이 펀드가 조성되면 전북특구 연구소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받을 수 있어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재용 기자

대통령 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

전북도선관위, 캠페인 등 진행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40여일 앞두고 21일 전주시 동서화동에 소재하는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백마음원단의 치어리딩 공연을 시작으로 공정선거지원단 행동강령 선서와 함께 '자유롭고 공정한 준비선거, 우리 함께 만들어요!' 퍼포먼스 등을 통해 중대선

거법죄 및 불법선거 근절을 위한 선관위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천명하고 참여,공정,화합의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발대식 후에는 선관위 직원, 공정선거지원단이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중대 선거범죄 근절, 정책선거, 투표참여, 과대표,포상금 제도 등의 홍보문안이 게재된 미니 보드판 및 홍보용품 등을 이용해 공정선거 캠페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인재용 기자

경제산업분야 '전북 뭍 찾기' 간담회 개최

전북도는 21일 유희숙 경제산업국장 주재로 경제산업분야 출연,유관기관(단체)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뭍 찾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가 대선과 전라도 정년 1,000년을 1년 앞둔 중차대한 시기로 '전북 뭍 찾기'를 통해 전북인의 자존감 회복과 전북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최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출연,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전북 독자권역 설정, 대선공약 반영, 공공, 특행기관 설치 등 '전북 뭍'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참가자들은 주민생활권과 경제권이

다른 전북을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어 공공,특행기관이 광주에 편중돼 전북도민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자존감 저하를 유발하고 있다며 호남권 본부를 분리해 전북본부를 따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에도 많은 인재가 있음에도 제대로 등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지역별로 균형 있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오늘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고 더욱더 구체화하여 전북 뭍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도 전북 뭍 찾기를 통해 공정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도-21개 아파트·17개 마을 저탄소생활 협약식 개최

도민들의 저탄소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도내 아파트와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 실천 등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에 나섰다.

전북도와 전북 기후·환경네트워크는 21일 도내 21개 아파트 단지, 마을 17개소(총 1만6,417가구)가 참여한 가정세대 저탄소생활 실천협약을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도에서는 아파트와 마을 주민들이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가구별 에너지 진단 컨설팅 등 각종 행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참여한 아파트와 마을에서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와 주민들의 저탄소생활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에서는 아파트와 마을별 선의의 경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에너지(전기) 감축량, 에너지 진단 컨설팅 참여율,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및 자체 주민들이 참여한 교육 홍보 실적 등을 도 자체 평가단을 구성해 11월 중에 평가해 포상과 인센티브를 동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최재용 환경복지국장은 "생활 속의 작은 실천으로 지구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며, 미래 세대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달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아파트와 마을 주민들 사이에도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와 전북 기후·환경네트워크는 21일 도내 21개 아파트 단지, 마을 17개소 총 1만6,417가구가 참여한 가정세대 저탄소생활 실천협약을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재선충병 이달 말까지 막바지 총력 방제

도, 감염 소나무류 제거 완료키로... 피해 확산방지 위해 소나무류 이동 제한 당부

도내 5개 시·군(군산·익산·김제·임실·순창)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전북도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성충이 되기 이전인 이달 말까지 감염된 소나무류 제거를 완료하기로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20일 현재 방제대상 24만그루 중 23만그루를 제거했다. 그동안 산림청을 수시로 방문·설득해 11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으며 총 49억원을 투입하게 돼 재선충병 재발생율을 낮추기 위한 방제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는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소나무류 고사목 2만본 전량 시료채취로 현미경 관찰했고, 올해 또한 고사목 전량을 시료채취 관찰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 도시군 공무원, 감시원을 최대한 활용해 재선충이 걸린 감염나무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설정된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피해가 급증하지 않도록 소나무류를 팔감으

로 사용하는 농가와 업소에서 방제목을 무단으로 훼손하지 않도록 홍보와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 산림당국은 "도내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특성은 고사목 발생 본수는 적지만 관리면적은 넓은 점으로 전산립 행정력을 동원해 집중 방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에게 재선충병 피해의 심목 발견시 산림부서에 신고를 요청하고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땀나무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2월의 으뜸도정상' 관광총괄과 등 3개 부서 선정

전북도는 21일 '하יש습의 날'을 통해 지난 2월 한달간 업무성과가 우수한 3개 부서를 선정하고, '이달의 으뜸도정상'을 시상했다.

'이달의 으뜸도정상'은 총 14개 부서를 대상으로 내부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는데, 최우수 부서에 관광총괄과, 우수부서에 친환경영양과와 미래산업과가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부서에 선정된 관광총괄과는 도내 주요 60여개 관광지과 시·군내 버스 및 공영주차장은 물론 1,000여개의 맛집, 숙박, 공연(체험) 등을 편리하

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초 전북관광 자유상품권 카드 '전북투어패스'를 출시하고, 발매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전북투어패스 운영기반을 구축해 성공적인 전북도관광을 실현했다는 평가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달의 으뜸도정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도정의 성과를 극대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전주병원 '학대 피해아동 의료지원' 협약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의료법인 전주병원은 21일 전주병원 인공신장센터 3층 교육실에서 학대 피해아동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전주병원은 학대 피해아동에게 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한 총 20여개의 진료과 전문의들의 종합

적인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의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지역 내 아동 보호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소아과·소아외과 등 전문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